

제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0. 2. 19.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2월 19일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손 병 두 부위원장

이 성 호 위 원

최 훈 위 원

윤 석 현 위 원

윤 면 식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0년도 제2차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3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2020년도 제2차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2차 금융위 안전
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53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54호 『한화투자증권(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55호 『KB증권(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56호 『(주)씨비파이낸셜솔루션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57호 『자이랜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58호 『삼성생명(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59호 『미래에셋생명보험(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60호 『신한카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61호 『(주)KB국민카드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62호 『(주)아이콘루프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삼성생명(주) 관련하여 근로자 2인 이상 5인 미만의 소규모 단체보험 관련 특례를 인정하는 것인데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보는지?
- (보고자)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유가족 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계약하는 사업주 그리고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 유가족에 대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부가조건을 부과한 바 있음. 예를 들면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사망보험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될 때는 유가족의 확인서를 징구해야 된다는 부가조건을 달아 부과시켰음. 그다음에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도 기존에 사업주에게만 제공되던 약관을 근로자에게도 의무적으로 다 제공하도록 했고 부가조건을 붙였음. 제일 핵심적으로 업무 외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보험금의 수익자가 유가족이 되도록 부가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우려했던 문제점은 부가조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 (위원) 그런 부가조건을 통해서 관리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기초서류 신고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서류가 없는 것인지?

- (보고자) 기초서류는 있음. 다만, 이런 부가조건이 붙은 경우에 한해서 기초서류에 대한 사전신고·수리 없이 할 수 있는 특례임.
- (위원)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닌지?
- (보고자) 상품개발을 할 때 기초서류 자체는 작성해야 되는 것임. 그런데 기존 규제는 이 기초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해서 금감원에서 기초서류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이런 부가조건이 붙은 5인 미만에 대해서는 기초서류는 작성하되 금감원에 사전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특례 내용임.
- (위원) 그 기초서류를 금감원에서 보기를 희망하면 볼 수 있는지?
- (위원) 그러니까 기존 상품개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약관이나 이런 형태의 기초서류들은 존재하는데 거기에 따른 절차만 면제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이 상품의 규제특례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임. 금감원에서 회사가 작성한 기초서류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할 예정임.
- (위원) 제출할 예정과 신고 없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 (보고자) 사전신고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신고·수리하지 않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가조건 하에서 회사가 약관 같은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이 작성된 것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면 사후적으로 금감원에서 진행과 관련해서 수정이나 보완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보완을 권고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임.
- (위원) 필요하면 금감원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신고를 사전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사전신고만 면제를 해 주어서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고, 사후적으로는 지금도 어느 상품이든지 문제가 있다면 상시적으로 검토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변경 권고를 하거나 감독행정을 하고 있음.
- (위원) 기초서류가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절차만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 편의성 제고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 혁신성이 있는 것인지?
- (보고자) 심사를 하면서 혁신적인 측면이라고 파악한 것이 그동안에는 단체보험에 기본적인 구성원을 5인 이상으로 봤음. 그래서 5인 이상 단체보험만 허용되어 왔었는데 이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명이라든지, 신체에 대한 상해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의 필요성이 5인 미만의 영세 기업들이 더 큼. 그런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보험을 만들고, 소규모 기업에 대한 사적인 안전망을 좀 더 강화하는 첫 시도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을 높게 평가했음.

- (위원) 혁신성보다는 포용에 가까운 상품인 것 같고 반대할 생각은 없음. 그런데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듦.
- (위원) 금융혁신 샌드박스할 때는 뭔가 참신하고 보통 ICT를 활용해서 평소하지 않았던 부분을 혁신성으로 봤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넓혀가는 것이니까 포용성 측면이 되는 것인데, 소비자보호측면은 금감원이 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실제 법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나가면 좋을 것 같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63호 『비씨카드(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64호 『메이슨캐피탈(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당연히 삭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신용정보를 미삭제하는 경우(case)가 많은지?
- (보고자) 2016년 3월 「신용정보법」에 삭제 조항이 반영된 이후 주기적으로 전(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이라 위반회사가 많은 것임. 최근에는 거의 정착되어 더 이상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임.
- (위원) 회사들이 정보를 몰라서 그렇다면 미리 알려주면 좋겠음.
- (보고자) 저희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매년 1~2차례 내부 통제워크숍을 하고 있음. 그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지도하고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65호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회업 예비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평가실 신용정보1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66호 『(주)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67호 『맥쿼리자산운용(주)와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
운용(유)의 합병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68호 『모놀리스자산운용(주)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5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 , 제6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결과 보고』 , 제7호 『(주)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를 일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금융위원회 제3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53분 폐회)